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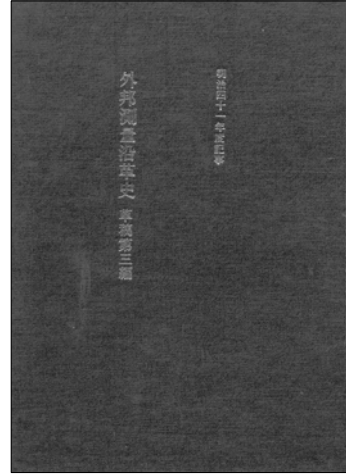
19 外邦測量沿革史 외방측량연혁사 (전3권)

1939년(제1, 2권), 1979년(제3권) / 북지나방면 사령부 참모본부(北支那方面 司令部 參謀本部) / 1권 477면, 2권 462면, 3권 460면 / 08.10-19 참35외 1979

일 본 군부가 남의 나라를 측량한 기록이다. 총 3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은 1895년~1906년까지의 기록으로 477면이다. 제2권은 1907년의 기록인데 462면이고, 3권은 1979년 일본 동경에서 북사본으로 출판한 것이다. 위 세 권은 공히 북지나방면 사령부 참모본부(北支那方面 司令部 參謀本部)에서 출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 1, 2권은 1939년에 출간한 것인데 필자는 1968년에 거금 2만 엔(약 23만 원)을 주고 동경에서 구입했다.

제1권에서는 1895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중국의 안미성(安徽省), 절강성(浙江省) 및 복건성(福建省)에 대한 측량을 했다. 1903년에는 우리나라의 평안도와 황해도, 압록강 유역 일대를 측량했다. 일본이 남의 나라를 측량하기 시작한 것은 1889년 이후의 일이다. 1907년의 기록에 의하면 회령(會寧), 무산(茂山) 및 은성(穩城) 등지에 대한 측량반장의 보고서가 있다.

이 무렵 참모총장은 훈령 10호로서 측량반장에게 1907년도 만주에 대한 측량구역을 지시한다. 동쪽으로는 두만강 연안 및 한국쪽 외의 기 측량지역에 연접하여 회령(會寧), 액목색(額木索), 길림(吉林) 가도 및 은성(穩城), 영고탑(寧古塔) 가도를 포함한 일대의



지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회덕(懷德) 방면의 기 측량지역에 연접한 북쪽과 서쪽에 걸친 일대의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가설을 하나 설정해 본다. 1861년에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작성한 대동여 지도에는 독도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시로서는 있어야 할 간도 부분이 없는데 이는 일제가 실시한 두만강 일대의 측량과 만주(간도지역)의 측량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국경지대 이남은 보병대위가 지휘하는 제1반이 원산 일대를, 제2반이 서울과 그 일대를, 제3반은 평양과 그 부근을, 제4반은 대구와 그 부근의 측량을 담당했다.

이들이 종사자들에게 내린 작업지침을 보면 ① 만약 측량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개인적 필요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라, ② 간부의 이름이나 특히 군과의 관계는 일체 발설치 말 것이며, ③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기물(器物)은 휴대하지 말 것, ④ 한국인과 승강이를 벌이지 말 것이며, 깡패를 만났을 때는 도주가 상책이다, ⑤ 필요할 때는 한복을 착용하라는 다섯 가지다. 또한 1895년~1937년까지의 측량과정에서 숨진 127명의 명단도 있다.